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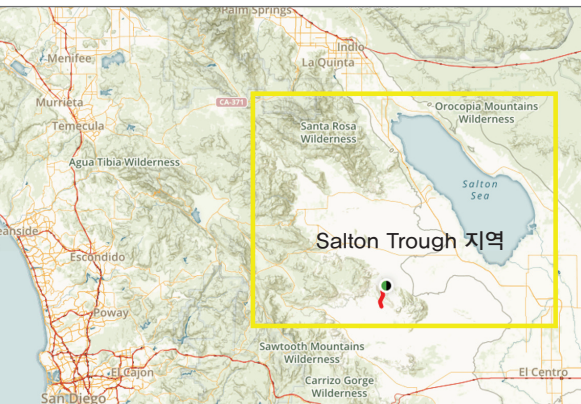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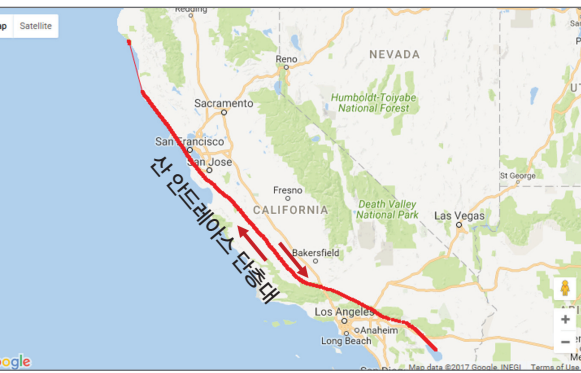
Volume 25 Number 3 2017



Anza Borrego에는 4F, 3S가 있다!

엔자 보레고 주립공원은 엘에이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8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샌디에이고 동쪽의 사막 지역이다. 사람이 살기에는 어려운 곳이지만, 지질학적으로는 특이한 구조들을 볼 수 있는 보물 같은 곳이다.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ITCM 8기 훈련생들은 이재만 선교사님, Bill Hoesch와 함께 바로 이곳으로 지질 답사를 다녀왔다. 훈련생들은 그 곳에 가서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느꼈을까? 그곳에서 풀려진 창세기의 비밀이 있을까? 지질답사 후 훈련생들과 나눈 인터뷰를 4개의 F와 3개의 S로 정리해 보았다.

1F: 첫 번째 F는 “Fault”(단층)이다. 캘리포니아를 길게 가로지르고 있는 유명한 지진대인 산 안드레아스(San Andreas) 단층의 가장 남쪽 끝자락이 바로 엔자 보레고 지역이다. 지금도 단층활동으로 인해 지진 발생이 잦은 지역이지만, 사실 현재는



판의 운동이 매우 느려져있는 상태이다. 창조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때, 전 대륙을 덮고 있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던 기간에 거대하고 빠른 판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본다. 북태평양판은 이 시기에 판의 운동 방향이 바뀌며 북서쪽으로 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판은 북서쪽으로, 북아메리카판은 남동쪽으로 밀려갔기 때문에 판들이 서로 약 240 km 정도 어긋나며 산안드레아스 단층대가 형성되었다.

1S: 첫 번째 S는 “Salton Trough” (솔튼 함몰대, 지도의 노란 박스)이다. 산안드레아스 단층대의 서쪽과 동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겨짐으로 인해 단층과 단층 사이 지역이 함몰되는 것을 트러프(trough)라 한다. “Salton Sea”라고 불리는 호수 일대의 넓은 지역이 바로 이렇게 단층에 의해 당겨져서

내려앉은 지형이다. 앞으로 우리가 엔자 보레고에서 볼 지형들은 대부분 이 트러프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아직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호수면이 500년 전에는 해발 12m 위에 있었지만 계속 낮아져 지금은 해발고도 -68m이다.

2S: 두 번째 S는 “Split Mountain”(스플릿 산)이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곳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지층 사이에 갈라진 통로(계곡)가 생겼다. 그래서 계곡 양쪽에 지층의 절단면이 훤히 드러나 보였다. 압도적인 지층들 사이를 차로 달리다가 어느 곳이든 멈춰서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많은 진흙, 모래, 바위 덩어리들이 아름다운 줄무늬를 이루고 규모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거대하게 쌓여 있었다. 이 많은 흙들은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모래와 바위들이 뚜렷한 줄무늬를 이루며 연속적으로 쌓여 있을까? 어떻게 자동차만한 바위들이 저 높은 지층들 위에 박혀 있을까? 놀랍게도 우리의 입을 다물 수 없게 한 사실은 이 엄청난 흙과 바위의 근원지가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저 멀리 콜로라도 고원이라는 것이다. 이것들은 최대 너비 30km, 깊이 1.8km, 길

이 440km로 깎여져 거대한 협곡이 생기게 한 그 사건, 바로 그랜드 캐년을 형성시킨 붕괴에 의해 밀려내려온 것이었다. 노아홍수 후기 무렵 콜로라도 고원의 융기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두 호수가 터질때, 물들이 무서운 힘으로 아직 덜 굳은 지층을 깎아 엄청난 흙들을 바하캘리포니아로 이동시켰다. 그 일부가 산안드레아스 단층 작용에 의해 낮아진 이 솔튼 트러프 지역으로 쏟아지면서 이 일대에 이런 거대하고 뚜렷한 지층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2F: 두 번째 F는 “Folding”(습곡)이다. 스플릿 산 계곡의 또 하나 볼 거리는 이 무지개처럼 보이는 부드러운 습곡이다. 마치 거대한 고무찰흙을 쥘 쥘이 쌓아놓고 누가 금방 휘어놓고 간 것 같다. 중요한 점은 지층이 아직 부드러울 때 압력을 받아야 이렇게 부드럽게 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질학적 실험들은 단단해진 암석은 어떻게 압력을 가해도 휘어지는 대신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습곡들은 아래에서 위까지 매우 부드럽게 휘어져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격변적인 퇴적, 격변적인 침식, 격변적인 지각 변동에 의한 물리적인 변화들을 보고 있었다. 엔자 보레고 그 어디에도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이고, 깎이고 깎이고...식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3F: 세 번째 F는 “Fossils”(화석)이다. 스플릿 산을 통과하여 한 참을 차로 달려가면 가뿐히 걸어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언덕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올라가보면 무수히 많은 조개껍질들



이 산산조각 난 채로 화석화되어 있었다. 그랜드캐년의 지층이 깎여질 때, 얼마 나 파괴적으로 이동해왔는지, 밀려오던 흙들이 이곳에 와서 멈추게 되면서 흙과 조개껍질 조각들을 쓰레기 더미처럼 쌓아 놓게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4F: 네 번째 F는 “Font's Point”(폰츠 포인트)이다.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모래 언덕 길을 30분쯤 걸어 들어가 그 끝에 도달했을 때, 몇 발짝 뒤에서 조차 보이지 않던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경사면을 따라 단층 작용이 일어나면서 동쪽으로 미끄러지듯 산사태가 일어나며 형성된 곳이다. 이 기괴한 능선들을 만들어낸 표면 침식은 빙하시대를 거치며 형성된 특별한 지형이라고 한다. 일반 지질학자들에게는 설명이 어려운 지형이다.

그러나 성경적 지질학자들은 노아홍수 후기의 격변적 판의 이동과 물 빠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괴적인 침식, 그리고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2차적 퇴적, 그 위에 빙하기의 영향으로 일어난 구조적 침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으로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가장 정확



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된다. 이 가슴 아프도록 아름다운 언덕 위에서, 이 모든 땅에 일어난 파괴적인 변화들이 인간의 반역으로 인한 심판과 흙으심의 과정에서 남겨진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보시기에 좋았던 땅을 전지구적으로 뒤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꼈고, 보았다.

3S: 마지막 S는 “Shell Canyon”(셸 캐년)이다. 엔자 보레고의 남쪽 지역인 이곳은 찾아가기는 힘들었지만, 조개 화석들을 정말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설명에 기대를 가장 많이 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허겁지겁 언덕을 올랐다. 화석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그 언덕을 가득 덮고 있는 것이 다 조개, 굴 등의 해양 생물 화석이었다. 어떤 곳엔 굴껍질 화석이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곳

의 퇴적물들은 비교적 가까운 멕시코 만쪽으로부터 쓸려 온 것이라고 한다. 노아 홍수 당시 얇은 바다였던 곳으로부터 물이 넘쳐오면서 흙과 조개들이 떠밀려 와 쌓인 것으로 본다. 흥분을 감추지 못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시체로 보였다. 막상 줍고나서 보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종류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했던 생물들이다. 그것들은 모두 아름다웠던 조개들이다. 왜 이 모든 것들은 처참하게 그것도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게 되었을까? 이런 조개 화석들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화석의 형태라고 하는데, 히말라야 산맥에도, 안데스 산맥에도, 도처에 있는 이 해양생물들의 화석들을 생각하니 전 지구가 물에 덮였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와닿았다.



엔자 보레고 지역의 다른 이름은 Badland(나쁜 땅)이다. 그렇다. 이곳은 수백~수천 킬로미터를 떠밀려온 엄청난 흙들, 바위 덩어리들, 해양 생물의 시체들이 쌓여있는 곳이었다. 전지구가 파괴된 홍수 심판 속에 지구의 거대한 땅 덩어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가며, 또 어긋나버린 흔적을 보란듯이 노출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저주 받고 심판 받은 결과 위에 살고 있음을 잊을 까봐 가끔씩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땅이다. 지금은 사막화되어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곳일지 모르지만, 그 때 그 자리에 계셨고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곳을 걸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창세기의 역사를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땅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대로 사실인 과거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되새기게 하였다. 이 Badland에 서서 우리는 외쳐본다. 마라나타!





「빙하시대 이야기」가 말하는 성경적 빙하시대

「빙하시대 이야기」는 세속적 빙하시대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여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했다. 한편으로 책은 성경을 통하면 세상 과학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빙하시대 역사를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1. 빙하시대의 핵심은 눈이다.

빙하시대는 온도가 급속하게 낮아 바다가 얼었던 시기가 아니라 눈이 많이 내려 빙하가 많이 생성됐던 시기라고 얘기한다. 사실 이는 세상 과학자들이나 창조과학자들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으로서 습한 대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 많은 눈이 내렸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부분에서 빙하시대 화석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생성된 것이 아니라 급격한 눈사태와 산사태로 순식간에 묻혀 생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세속 과학자들은 다량의 강설 조건인

따뜻한 바다(=다습한 대기)를 설명하지 못한다.

세속 과학자들은 빙하시대에 많은 눈이 내렸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강설의 조건인 습한 대기, 즉 바다가 따뜻해 증발이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차가운 기온 환경에서 조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 심판을 생각해보면 홍수 후기에 엄청난 해저 화산분출로 인해 해수의 온도가 상승했고, 그래서 충분한 수증기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3. 빙하시대는 바벨탑 사건의 결과이자 언어, 종분화, 인종, 멸종 등 모든 궁극증의 해답이다.

세속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기원이 무엇인지, 왜 특정 경계를 넘어서면 언어가 불연속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변하는지 모른다. 또 진화론자들은 그들의 주장대로 진화의 과정으로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다면 인구 교류가 적었던 1940년대 이전에는 왜 피부색이 지역에 따라 점진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동물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종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룡이 어떻게 멸종했는지 등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처음부터 말을 할 줄 알았으며(창 2:23) 인류가 하나님께 바벨탑을 건설하며 정면으로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인류를 온 지면에 흠으셨다고(창 11:9) 전한다. 아마도 그 즈음에 빙하시대가 시작하였을 것이다.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이다. 더워서 절대 얼음이 얼지 않는 지역인 우스에 살고 있던(그것도 딱 바벨탑 사건 이후의 시기에) 욥과 친구들이 얼음과 추위와 눈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 아니다. 이 당시의 인간과 동물들은 추위를 피해 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며 많은 강설로 인해 해수면이 낮아져 대륙붕이 드러나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완벽한 격리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격리를 통해 종분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며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공룡 같은 동물들은 서서히 멸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상 과학자들이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힘든 부분을 성경은 한 번에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설명해내는 것이다.

성경은 참으로 신묘마측하다. 과학자들이 최근에서야 알게 된 과학적 사실을 성경은 이미 기록된 당시부터 전하고 있었으며 아직도 해석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성경은 막힘없이 해석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가. 이 놀라운 증거들이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증거들을 보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순서가 바뀐듯하다. 세상의 증거가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인 것이 아니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증거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빙하시대 이야기」를 읽고, 강의를 들으며 너무 명쾌한 답을 얻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딤후 3:16).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다는 뜻이다. 인간이 혼자서는 깨달아 알 수 없지만(욥 38:4)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분은 모든 답을 성경에 넣어두셨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성경을 펼칠 시간이 된 것 같다.

ITCM 8기 / 윤예원 (한국해양대 4년)

ACT News

8기 ITCM 소식

8기 ITCM(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창조과학 집중훈련)이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ITCM은 창조과학, 성경, 세계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8주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8기 ITCM도 기존 강사뿐 아니라 외부 강사님들께서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양익혁 교수님께서 '빛과 시간', 최태현 교수님께서 세계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Bill Hoesch는 세인트 헬렌 산에서 드러난 격변에 대한 증거로 강의를 인도하셨습니다. ITCM 훈련생들은 각 특강을 통해 훨씬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성기진 집사님 내외, B 국가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등도 방문하셔서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훈련생들은 이곳에 있는 동안 성경공부, 기도, 창조과학 도서와 자료들, 강의, 북웨어링, 필드트립, 열린 발표 등으로 온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 일들을 익혔습니다. 훈련받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돌아가는 10명의 젊은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ITCM 엔자 보레고 Field Trip

지난 1월 14-16일 8기 ITCM은 엔자 보레고(Anza Borrego) field trip을 가졌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실내에서 배운 홍수 심판과 빙하시대의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층, 화석, 단층, 습곡 등을 직접 보고 만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와 Bill Hoesch가 인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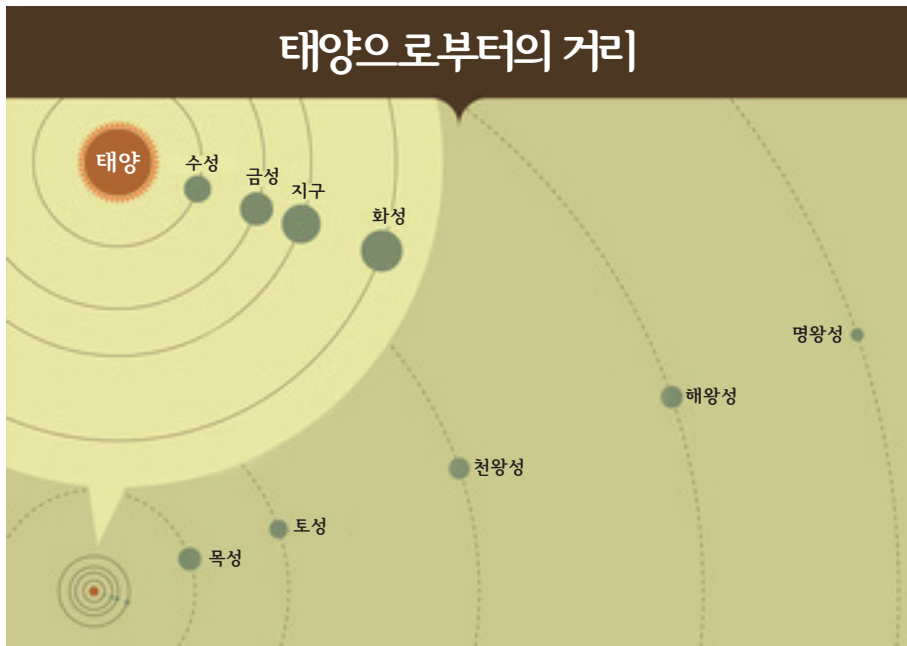
로고스

지난 1월 28일 창조과학 단체인 Logos(로고스)의 이사회원의 모임이 코스타 메사에 있는 갈보리채플에서 열렸습니다. 로고스는 John Sanford(유전학, 회장), Drs. Steven Austin(지질학), John Baumgardner(지구물리학), Jay Wile(핵물리학) 등 미국창조과학 연구분야의 리더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이번 모임에서 3시간 가량 성경과 과학에 대한 Q&A 시간을 가졌으며, 여러 질문들에 대해 강사들의 성실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8기 ITCM도 모임에 참석하여 미국 창조과학 사역의 현장을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만 선교사와 Bill Hoesch는 모임 이전에 있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두 기관 간의 사역의 협력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재만 회장 한국방문

이재만 회장은 오는 3월 1-27일 4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동대학교, 합동신학원에서 강의와 교회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3월 초에 출판될 '타협의 거센 바람'(두란노) 출판 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건강과 열매에 대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태양계도 총알처럼 달리고...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명왕성은 2006년 제26차 국제천문학회 결정으로 행성 자격 박탈됨)과 그 행성들의 주위를 돌고 있는 지금까지 발견된 166개 이상의 위성들, 그리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띠(벨트)를 형성하는 수많은 소행성(지름 1km 이상의 소행성 약 100-200만 개로 추정)들과 그 밖에 왜성 및 운석과 혜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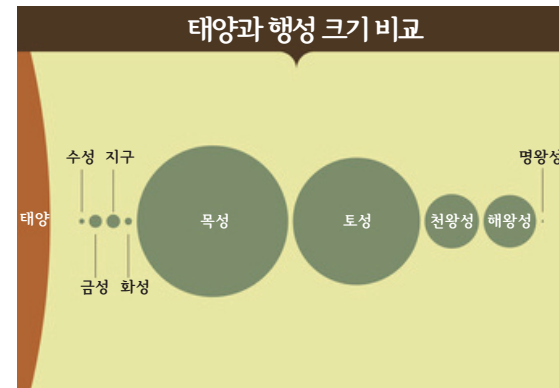
오늘날 학자들은 태양이 평균 크기의 별 중의 하나로서 태양계 내에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다. 태양에서 만들어진 빛이 지구까지 도착하는데 약 8분이 걸리고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까지 이르는 데 5시간 30분이 소요된다. 그래서 우주는 말할 것도 없고 태양계 자체의 크기를 상상하기도 쉽지 않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일 태양을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의 한 가운데에 있는 직경 22cm 축구공 크기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지구는 그 중앙으로부터 약 24m 떨어져 그 축구공을 돌고 있는 좁쌀알(지름 2mm) 크기 정도이고, 해왕성은 운동장 밖 1000m 지점에서 돌고있는 포도알(지름 8mm) 크기에 해당한다. 태양이 우주에서 중간급 크기의 별이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별은 알파 센토리(Alpha Centauri) 별이다. 이 별은 지구로부터 4.5광년(빛의 속도로 달

려서 4년 6개월 걸리는 거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 경기장 한가운데 축구공이 태양이므로 알파 센토리 별은 그로부터 약 7,000km 떨어진 캐나다의 밴쿠버쯤에 있는 또 다른 축구공인 셈이다.

태양의 평균 지름은 140만 km로 지구 직경의 약 110배,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 무게는 지구의 33만배나 된다. 태양은 전체가 고온의 기체 덩어리로 중심

에서 중수소들이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을 통하여 열과 빛을 방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 태양의 열원은 초당 약 3.8×10^{26} 줄(Joule)의 열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TNT 100만 톤에 해당하는 1메가 톤 원자탄 1000만 개가 매초 폭발하는 것과 같은 위력으로 비교된다. 천문학자들은 태양을 중간급 크기의 보통의 별로 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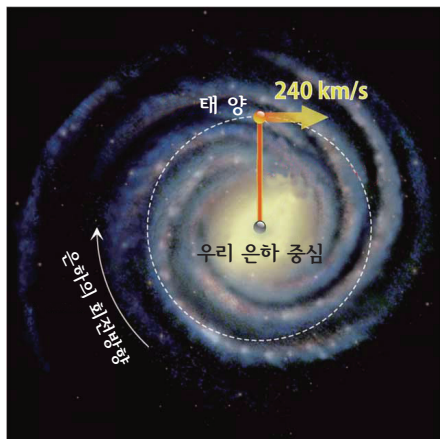
으며 우리 밀키웨이 은하계 내에 태양과 같은 에너지를 내는 별들이 약 1000억 개 이상이었다고 추정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포함하는 밀키웨이 은하계에 대한 연구는 영국의 천문학자 허셸(Herschel, 1738-1822)의 대형 망원경의 개발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하버드대의 새플리(Shapley, 1885-1972) 교수는 우리 은하계 모습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처음으로 종합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그는 밀키웨이 은하계의 지름은 거의 10만 광년이며 태양계는 그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였다.

그 후 전파 천문학이 도입되면서 1932년 잔스키(Jansky, 1905-1950) 박사를 비롯한 전파 천문학자들은 매우 흥미로운 은하계의 구조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우리 은하계는 나선형 구조이고 정적상태가 아니며 동적으로 회전하며 이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계 중심에 대한 태양계의 상대속도는 초속 240km이고 우주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배경에 대한 우리 은하계 중심의 속도는 초당 560km로 달리고 있다고 주장하여 학계와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1-2]

이런 발표로 학자들은 세상을 놀라게 하였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아닌 성경구절들이다. 20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서 과학자들이 조금 이해하게 된 사실들을 3500년 전에 쓰여진 시편에 이미 태양이 달리고 있고 하늘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태양)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시편19:5-6)



여기서 과학자들이 우리 은하의 중심 속도가 초속 560 km라고 하는데 이 속도는 매우 빠른 총알이 초당 1 km를 진행하는 것에 비한다면 총알 보다 560 배나 빠르게 우주를 날고 있는 것이 된다. 이는 지구가 태양을 1년간 공전하기 위하여 총알 보다 30배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지구도 태양계도 모두 총알 보다 훨씬 빠르게 달리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시편에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하늘 이 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운행된다”

는 놀라운 사실을 시편기자가 어떻게 알고 기록하였을까? 당시 고성능 관측장비도 없었고, 전파 천문학도, 컴퓨터도 없었지만, 오늘날 천문학의 발달로 관찰하는 하늘의 운행과 조금도 틀림이 없는 표현인 것이다.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말 성경은 놀랍다.

오늘날 계속 확인되는 과학적 사실들은 밀키웨이 은하계 내에 존재하는 태양계 그리고 그 속의 지구가 위치로 보나 기능면에서나 유일하고 매우 특별함^[3-5]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에서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earth)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사45:18a)라고 선포한다. 동일하게 신약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earth)에 살게 하시고”(행17:26a)라고 설명하듯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람이 거주하도록 특별하게 지으셨다. 또한, 그 지구를 위해 총알보다 빠르게 달리는 은하와 태양을 배정하셨으며, 하늘의 운행 법칙을 정하셨다. 과학은 지금까지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며 성경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38:33)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 [1] Scott et al.; in: Cox, A.N., Allen's Astrophysical Quantities, 4th Edition, Springer-Verlag, New York, 2000.
[2] Humphreys, D.R., Our Galaxy is the centre of the universe, "Quantized" redshifts show, TJ 16(2): 95-104, August 2002.
[3] Sarfati, J., The Sun: Our Special Star, Creation 22(1): 27-30, 1999.
[4] Chown, M., What a star! New Scientist 162(2192): 17, 1999.
[5] Morris, M., What's happening at the center of our galaxy? Physics World (Oct, 1994), pp.37-43, 1994.



아마도 새보다 더 사람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생명체도 없을 것이다. 창조 다섯째 날에 특별하게 지음받은 새들은 공룡같은 육식 동물들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새들의 복잡한 디자인을 보면 모든 것은 그것들이 날 수 있도록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갈매기를 한 번 떠올려 보라. 우선, 그것들은 가볍게 디자인 되었어야 한다. 새의 뼈들은 구멍으로 비어있지만 버팀뼈들이 받쳐주어 견고하다. 공학자들은 이 같은 디자인을 비행기의 날개와 철골구조에 적용해왔다. 최소의 무게로 최대의



강도를 만드는데 이상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디자인은 가볍게 할 뿐 아니라 날개 아래에 무게 중심을 두게 해서 균형까지 잘 이룬다.

새는 또한 모든 동물 중에서도 독특한 고성능 호흡 시스템을 가졌다. 횡격막과 갈비뼈를 부풀렸다 가라앉혔다를 반복해야 하는 폐구조 대신

공기를 곧바로 공기주머니와 뼈의 구멍들 쪽으로 흘려 보낸다. 그때도 갈비뼈들은 고정되어 있다.

새에게 특히 중요한 디자인은 이륙을 위한 날개 표면이다. 새의 날개와 깃털은 이것을 아름답게 완수해낸다. 날개 중앙에 있는 관은 속이 빈 구조로 가볍고, 깃털은 최대로 튼튼하도록 소우지(barb)와 기깃(barbules)이 얹히듯 짜였다. 또한, 깃털은 개별적으로 조절되는 근육에 의해 각각을 움직이고 회전시킬 수 있어서 새를 이륙시키기에 알맞은 모양으로 날개를 변형시킬 수 있다. 꼬리에 있는 깃털과 날개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뼈로부터 날개의 깃털 하나에 이르기까지 새의 모든 특징은 새들이 날도록 훌륭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하나님이...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창1:21

— The Creation Museum DVD,
LIFE “Flight” 중에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제 자신만의 믿음도 없었고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그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는 잊은 지도 오래고 어렸을 적 배운 진화론이 당연히 사실인줄로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탐사를 통해 이런 그릇된 생각의 틀을 깰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은선 <일리노이대학 샴페인어바나교회>

2007년 외국친구들과 함께 하는 캠핑으로 그랜드캐니언에 왔을 때는 말 그대로 sight-seeing 이었습니다. 똑같은 그랜드캐니언을 보면서 전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삭막하고 삭막한 아주 오래된 자연경관을 봤다면 이번에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경숙 <뉴욕백민교회>

주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아닌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깨닫았음을 고백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내려 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우리 인생의 완전한 가이드라인이고, 유일한 정답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갑니다. -박해든 <일리노이대학 샴페인어바나교회>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창조론을 믿는다' 는데 상당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늘 성경에 '처음'에 대해 쓰여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심과 기대감이 있긴 했습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 참여는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혼란속에 살고있는지 너무도 놀랐고, 모든 것이 성경으로 연결되고 설명될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김아영 <일리노이대학 샴페인어바나교회>

진화론의 패러다임 속에서 무기력해진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지난 날의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다.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며 창조론적 사고와 성경의 정확무오함을 이번 탐사일정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발견하고 각오하고 갑니다. -신영설 <풀러신학교 파사데나장로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영성이 넘쳤고 알찬 이 선교사님의 헌신이 녹아든 이 프로그램이 제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확고한 신념, 탄탄한 지식, 설득력 등 모두 크나큰 힘이 되었고 제게 남은 2년여의 작업에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전경호 <웨스트민스터장로교회>



2017 ACT Schedule

2/28-3/26	한국 및 대만 세미나, 이재만
3/30-4/7	창조과학탐사 (연합팀), 이재만
4/8-14	창조과학탐사 (생터성경사역원), 이재만
4/16-22	창조과학탐사 (높은뜻푸른교회), 이재만
4/23-27	창조과학탐사 (하늘샘교회), 이재만
5/1-7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1), 이재만
5/17-19	창조과학탐사 (온누리교회), 김낙경, 최우성
5/18-24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25-6/1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6/4-9	창조과학탐사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6/12-20	창조과학탐사 (기쁨의동산교회), 이재만
6/21-25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 이재만
6/26-7/2	창조과학탐사 (안양석수교회), 이재만
6/26-28	창조과학탐사 (미주한인예장 남가주노회 EM), 김선옥
6/29-7/1	창조과학탐사 (얼바인베델교회 고등부EM), 김선옥
7/3-12	창조과학탐사(과천약수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